

만 물이 새 생명을 싹틔우는 봄이다. 그러나 우리 주 위에는 아직 '봄'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불편한 몸과 낙담지 못한 가정행편으로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들에게 따사로운 자비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봄, 생명의 봄...

80세 보살님 700만원 쾌척 효준이 구순구개열 수술... "건강으로 보답"

올해 9살이 된 효준이에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형종양 제거 수술을 받은 효준이는 난청과 선천적으로 입천장이 떨어져 있는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다.

청각장애 1급으로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효준이에게 시급한 것은 구순구개열 수술. 그러나 택시운전을 하던 아버지는 몇 달 전 교통사고를 당했고 어머니는 암투병중인 외할머니의 병수발로 수술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1월 말, 생명나눔실천본부가 진행하는 '환우돕기'에 효준이의 사연이 소개되고 난 후 도움이 손길에 닿았다. 80세의 한 노 보살님이 수술과 1년 동안의 언어재활치료를 필요한 700만원을 선포 내놓았기 때문이다.

2월 2일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화를 건 노 보살님은 익명을 요구하며 "효준이를 돕고 싶다"며 7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보살님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며 3월 12일 열린 전달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12일 성금을 전달받은 효준이 어머니 김경미(36)씨는 "선뜻 치료비를 지원해주신 어르신께 감사드립니다"며 "직접 뵙지 못해 아쉽지만, 앞으로 재활치료를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계사 '이웃을 위한 등' 성금 전달 수진·민석남매 하지마비 치료 '파란불'

2005년 부처님 오신날, 서울 조계사에 '이웃을 위한 등'이 밝혀졌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조금씩 마음을 내어 단 등 500여 개가 모였고, 그만큼 성금도 쌓여 그중 1000만원을 강수진(11) 민석(8) 남매의 수술비로 지원하게 됐다.



남매는 유전성 강직성 하지마비를 앓고 있어 수차례의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매의 아버지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고 어머니는 소아마비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상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 지원금을 받아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다.

하지만 수술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물리치료와 병원의 딱딱한 일정 때문에 2년 가까이 수술 일정이 미뤄져왔다. 그러다 마침내 올해 말 민석이 수술대에 오를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계사 사회복지국 범성 스님은 3월 13일 서울 기회동에 있는 남매의 집을 찾아 성금을 전달하고 패우를 기원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민석이는 수술을 하면 더 잘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이 요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아버지 강대생(44)씨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수술을 하고 물리치료도 해야 하지만 밝고 건강하게 키우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웃을 위한 등'을 밝혀 지금까지 11명의 환우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올해도 조계사에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비의 등'이 내걸릴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문화재관람료" 고발 시민단체 아름다운 산하

시민단체인 아름다운산하(대표 이장우)가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시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 및 묵인 혐의로 조계종 총무원장, 회방사·천은사 주지를 3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다.

아름다운산하는 고발장에서 "천은사의 861번 지방도 통행제한은 도로법 위반, 보호비징수는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남도문화재보호조례 위반"이며 "회방사 주지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도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맞대응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중단서 대책 세우라" 부산불교교육대 동문회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강선태)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오르고 있다.

최현모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문회장장과 이덕자 회 회장 등은 3월 13일 조계사 인근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선태 학장을 비롯한 전 교직원과 운영위원들 해임을 비롯해서 신도전문교육기관령에 의거한 학교 정상화 내지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중단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조계종 포교원에 촉구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의 갈등은 2005년 9월, 강선태 학장 취임자 선출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면서 시작됐다.

남동우 기자



불교여성개발원 첫 정기법회 봉행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이 3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회 정기법회 및 사단법인 지혜로운여성 창립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승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이인자 전 불교여성개발원장, 소설가 남지심씨를 비롯해 개발원 임원진과 1·2차 여성불자 108인 선장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앞으로 1년에 2회 정기법회를 열고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질 예정이다.

사진=박재원 기자

'4대 생불' 고사난다 스님 3월 13일 美서 원적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았던 고사난다 스님(사진)이 3월 13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레버레이트의 롤리 디킨슨 병원에서 원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등지에서 수행했다.

1929년 캄보디아 타케오에서 태어난 스님은 43년 출가했다. 53년 인도 나란다대학 후 일본, 태국, 미얀마

남동우 기자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 프(http://hompj.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간: 7월 26(목)일~8월 14(화)일(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본 캠프에서 3년간 영어교육을 담당한 하와이주립대 영어 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테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및 시장에 나가 물건들 사고 현지인들과 영어로 대화.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홀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라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한인이민의 땅 서린 사랑수수농장 방문, 세계대전 격전지 진주만 탐방, 한국전쟁 참가 희생자들이 묻힌 편지봉 국립공원 참배
- 자연체험: 와이키키아민속촌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와이메아공원.
- 문화특강: 영어캠프 현지 총책임자인 하와이주립대 스피치커뮤니케이션과 김민선 교수가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 720-1868/010-6318-1976

"철탑·순환도로 공사 백지화하라"

서산가야산연대, 난개발방지·공원지정 요구

'철탑건설과 순환도로 건설로 죽어가는 가야산을 살리자.'

서산사암연합회와 예산 수덕사,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 등이 '가야산 지키기 시민연대추진위원회' (이하 가야산연대)를 발족하고 가야산을 지키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가야산연대는 3월 14일 충남도청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을 만나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 백지화 △가야산도립공원 지정 △난개발 방지 및 자연생태 보전 계획 수립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 국장은 "가야산 순환도로는 내포문화권의 편리한 관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산사암연합회 총무장 정범 스님(보원사 주지)은 "도로가 생겨 수많은 차들이 왕래한다면 지반 흔들림 등으로 서산마애삼존불의 균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가야산연대를 중심으로 도로 건설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충남도는 들어 서산시 운산면 용

현리부터 예산군 덕산면 서랑리를 잇는 '가야산 순환도로'를 개설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지난 1월 문화재청의 도로현상 변경 불허 통보로 사업 시행이 보류됐다.

이 순환도로가 개설되면 현재 문화재를 발굴중인 보원사지(국가 사적 316호)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보원사지를 지나는 2.8km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만 우선 건설기로 하고 오는 5월부터 다시 공사에 착수기로 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해남 성도사에 항일기념관 건립

구한말 의병 봉기·격전지...2009년 완공

전남 해남 성도사에 '항일운동 유적 기념관'이 건립된다.

성도사주지 무에는 최근 구한말 의병들이 봉기해 일본군과 격전을 벌였던 성도사에 항일운동 유적 기념관을 2009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도사는 2009년까지 국비 예산 450여억원을 들여 성도사 인근 부지 2만1000여 평에 의병 활동 기록, 최초의 농민운동 사료 및 유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면적 1900여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기념관에는

항일운동 유적 전시실, 항일 의병 활동 기록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영상실, 대강당 등이 들어선다.

무에 스님은 "기념관 설립을 통해 성도사가 일제 시대 항일운동의 격전지였다는 사실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역사체험을 올바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사는 현재 국가보훈처 및 광주광역시와 해남군 등에 사업인원을 제출했으며 결과는 6월경 최종 확정된다.

김주일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 ▶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 ▶ 그늘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 ▶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 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법당용, 외곽용
- ▶ 필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 ▶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 ▶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 ▶ 종류: 3W, 5W, 10W
- ▶ 특 필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질선효과가 있다.

☀️ **건전지용초, 방생, 탐들이 행사용**
 ☀️ **청사초롱 및 초롱 곁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근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 시공**